

중국 연내 돼지고기 등 육류시장 완전개방

중국이 연내에 돼지고기와 쇠고기 등 육류시장을 완전개방할 것으로 보인다.

미 농무성에 따르면, 중국은 미 농무성 산하 식품안전검사국이 허가한 미국내 작업장에서 생산된 돼지고기와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시장개방은 중국의 WTO 가입이 확정되는 올 12월 이전에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적인 미국산 육류의 중국행은 내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내 업계 일각에서는 중국이 미국산 돼지고기보다는 쇠고기에 훨씬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는 중국이 세계 최대의 돼지 생산국이자 주요 돼지고기 수출국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매달 약 10만톤의 돼지고기를 수입하고 있다.

일본 돼지고기 수입업자 관세 포탈 혐의 본로영장

-한국산 냉동 돼지고기 수출 위축 전망

니혼게이이신문은 5월13일, 효고현 경찰측과 세관이 냉동 돼지고기에 대한 차액관세를 포탈한 수입업자 6명에게 영장을 발부, 체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메이지유업 자회사인 동경의 '메이지 젠코햄'의 임원 등 6명으로 한국에서 냉동 돼

지고기를 수입해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높은 가격으로 허위신고함으로써 차액관세를 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240톤의 냉동 돼지고기를 한국에서 수입했으며 세관에 신고가격을 실제가격보다 높게 작성, 차액관세 4천3백80만엔 중 약 3천8백만엔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측은 이들이 이것 말고도 작년 한 해 동안 같은 방법을 통해 약 3억엔 정도를 탈세한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일본 경찰과 세관의 조치에 따라, 그동안 제3국을 통해 냉동 돼지고기를 우회 수출해 오던 많은 국내 수출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는 냉장육의 경우 기준가격 이상으로 수출을 하기 때문에 차액관세가 문제시 되지 않고 있으나, 냉동육은 기준가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수출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냉장육 수출을 늘리는 것이 근본적인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일본은 금년들어 이 같은 무역관행에 대해 한국에 시정을 요청해 왔었다.

양돈농가 1년전보다 6.7% 감소

- 돼지 사육두수는 987만두로 전년 수준

일본의 양돈농가수가 1년전보다 6.7% 감소했다. 일본 농수성 통계정보부는 4월28일 금년

2월1일 현재 축산 통계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양돈농가수는 1만2천5백호로 1년전보다 6.7% 감소했다. 돼지 사육두수는 9백 87만3천두로 작년에 비해 0.3% 감소하는데 그쳤다. 이에따라 호당 평균 돼지 사육두수는 739두에서 790두로 늘어났다.

이처럼 일본의 양돈농가수가 감소한 이유는 양돈농가의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 악취와 분뇨처리 어려움 때문인데, 중소규모 양돈농가를 중심으로 폐업하는 농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양돈농가 돼지값 하락으로 17개월 연속 적자

미국의 소 사육농가는 97년 8월부터 98년 10월까지 15개월간 판매가가 생산비에 못미쳐 적자를 계속해 오다, 지난 5개월간 흑자로 돌아섰으며 이익폭도 커지고 있다. 또한 브로일러 사육농가들은 98년 9월 이후 계속해서 흑자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현재 생체 kg당 판매가격이 59.5센트, 생산원가가 78.4센트인 돼지고기는 kg당 18.9센트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97년 11월 이후 17개월동안이나 연속해서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3월 현재 적자폭은 10센트대로 줄어들었다.

미국 농무성, 식육 'Organic(자연산 육류)' 인증 표시 인정

미국 농무성(USDA)은 식육 및 가금육에 대해서도 '오가닉(Organic)' 인증표시를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유기축산물도 공식적으로 하나의 특수 축산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Organic' 표시는 미국 유기식품생산법에 의해 그 기준을 설정하여, 소비자들에게 유기농

산물임을 보증하는 것으로써 농산물에서는 이미 90년부터 적용되어져 왔으며, Organic이 표시된 농산물에 관한 거래를 촉진시켜 왔다. 그러나 USDA(농무성)과 FSIS(식품안전검사국)은 그동안 오가닉이란 용어에 대해 통일적인 정의가 없다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오가닉" 표시를 인정하지 않고 대신 '항생물질을 투여하지 않고 사육', '호르몬을 투여하지 않고 사육' 등의 표시를 하는 것만 인정해 왔다.

이번 조치로 미국내 2백여명의 식육생산자 및 44개의 오가닉 인정기관으로부터 농무성 인증표시에 대한 신청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연산 육류'로 불리우는 Organic 식육은 사육기간 동안 항생물질 및 호르몬을 전혀 투여하지 않고 사육한 유기축산물이다.

프랑스 양돈농가에 돼지값 하락 보상금 269억원 지원

프랑스 정부는 돼지 가격 하락에 따른 양돈농가 구제 차원에서 양돈농가에 대해 총 1억4천만 프랑스 프랑(약 269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프랑스는 돼지 사육두수 증가로 98년에 돼지가격이 크게 하락해서 양돈농가들이 경영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프랑스는 지난해에 돼지고기 생산량이 전년 대비 4.7% 증가하였으나, 수입이 11.6%나 늘고 수출이 2.6% 감소한 여파로 현재 돼지가격이 전년보다 20% 낮게 형성되어 양돈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국 사상 첫 복제돼지 2000년초 탄생 전망

- 영국서 장기 인체 이식기술에 이용 기대

사상 첫 복제돼지가 2000년초쯤 영국에서 태어날 전망이다. 복제양 돌리를 복제한 스코틀랜드 소재 로슬린 연구소의 자회사인 게론 바이오 메드의 연구팀은 복제돼지가 올해 말이나

2000년초 태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영국 BBC 방송이 5월13일 보도했다.

이들 연구팀은 돼지 복제기술을 장기의 인체 이식기술에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돼지 복제기술이 인체 이식에 안전한 동물조직을 배양하는데 열쇠가 되고 있으며, 장기이식때 제기되는 거부반응 문제가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팀의 이언 위무트 교수는 세포핵 이전방법을 통해 배아를 배양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으며, 이제 배아를 대리모에 주입해 첫 주동안의 반응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E 사육두수 감축으로 생돈가격 상승세 U

지난 해 돼지 파동시 최하 100 파운드당 10 달러까지 하락하였던 생돈가격이 최근 33달러 까지 치솟는 등 미국의 돼지값이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다. 또한 유럽의 경우 사육두수의 감축으로 도축량이 지역별로 5-10% 줄어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돈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프랑스, 네덜란드 등도 이미 도축물량이 7-10% 정도 감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가격이 주당 2불/kg씩 오르는 등 점진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에 따라 서서히 상승세를 타고 있는 국내 수입 돼지고기 가격도 국내의 고돈가와 더불어 더욱 상승세를 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한동안 상승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성가포르 말레이시아산 동물 수입 전면금지 포르

-돼지 이어 개·고양이·경주마 수입금지 확대

말레이시아에서 니파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으로 120여명의 주민이 사망한 가운데 싱가포르 정부는 3월19일 말레이시아산 돼지 수입을 금지한데 이어 최근 개와 고양이, 경주

마 등 새를 제외한 산 동물의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말레이시아에서 만연하고 있는 새로운 전염병 때문인데, 싱가포르는 지난 3월에 20여 명의 환자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한 바 있다. 또한 이 전염병으로 돼지고기 소비가 약 40% 가량 감소했다.

한편, 싱가포르는 국토가 좁고 환경 문제로 인해 90년 이후부터 양돈업을 전면금지하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번 수입금지 조치로 호주 등으로부터의 냉동돼지고기를 수입하여 필요량을 조달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99년 돼지고기 생산·소비 증가 예상

- 미국 농무성 99년 생산, 도축, 소비 예측치 발표

미 농무성은 4월 세계 주요 32개국의 99년도 돼지고기 생산, 도축, 소비 예측치를 발표하였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세계 최다 돼지고기 생산국은 추정이 불가능한 중국을 제외하고는 미국이 856만톤으로 가장 많은 양을 생산할 것으로 추정되었고, 100만톤 이상 생산국은 EU 가맹 9개국 등 15개국이다. 일본은 129만톤으로 세계 12위, 한국은 90만 5천톤으로 17위 돼지고기 생산국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돼지 도축두수는 미국이 99년도에 1억두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2위는 독일, 3위는 스페인, 4위는 프랑스, 7위는 덴마크, 9위는 네덜란드 등이다. 1천만두 이상 돼지를 도축하는 나라는 17개국으로 일본과 한국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만은 980만두로 18위를 기록했다.

돼지고기 소비는 세계 소비의 50% 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중국을 제외하고 미국이 860만 톤 정도를 소비할 것으로 예상되며, 100만톤 이상 소비 예측국은 11개국이다. 일본은 5년전인 94년보다 1% 감소한 208만톤으로 5위이고, 한국은 15위로 예측되고 있다. 양돈